

05

빈집비율과 순이동 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주거구조 현황

※ 주거구조 : 지역의 주택이 실제로 '사용되고 있는 방식'과 사람들이 그 지역에 '머무르거나 떠나는 선택 패턴'이 동시에 드러나는 상태

01

최근 5년간 전국의 빈집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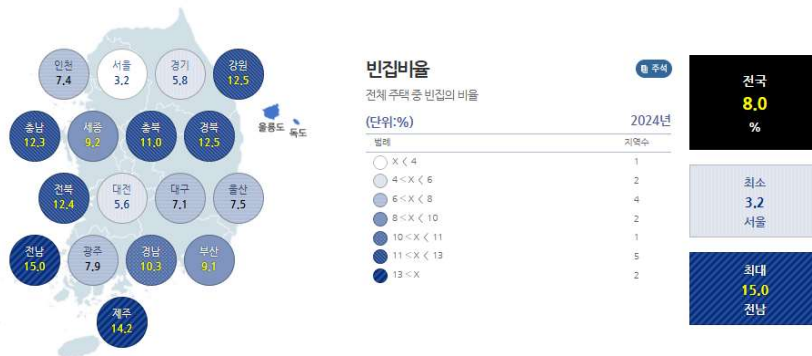
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 작성

- 최근 5년간('20~'24) 전국의 빈집 수는 충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.4%
 - 연평균 증가율 높은 순으로 대구(13.2%), 인천(6.5%), 충남(2.3%) 순이며 10년 평균 빈집수로는 경기, 경북 경남 순
 -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집비율*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
- * (빈집수÷전체주택×100)으로 계산되며, 지역의 주택이 거주공간으로 얼마나 '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'를 보여주는 지표

〈표〉 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빈집수 통계 현황

(단위 : 1,000호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	평균
서울	97	97	101	108	103	1.5%	101
부산	113	101	111	114	123	2.1%	112
대구	39	36	43	57	64	13.2%	48
인천	66	63	72	84	85	6.5%	74
광주	42	33	39	41	45	1.7%	40
대전	27	26	26	25	29	1.8%	27
울산	30	29	30	31	31	0.8%	30
세종	14	13	12	13	15	1.7%	13
경기	272	242	262	286	289	1.5%	270
강원	84	81	81	83	86	0.6%	83
충북	77	70	69	71	76	-0.3%	73
충남	106	97	102	113	116	2.3%	107
전북	95	89	90	91	96	0.3%	92
전남	122	116	120	121	127	1.0%	121
경북	140	130	127	129	141	0.2%	133
경남	151	139	135	133	138	-2.2%	139
제주	35	32	32	35	37	1.4%	34
전국	1,511	1,395	1,452	1,535	1,599	1.4%	1,498



[그림] 2024년 17개 시·도 빈집비율

※ 출처 : KOSIS 국가통계포털(kosis.kr)

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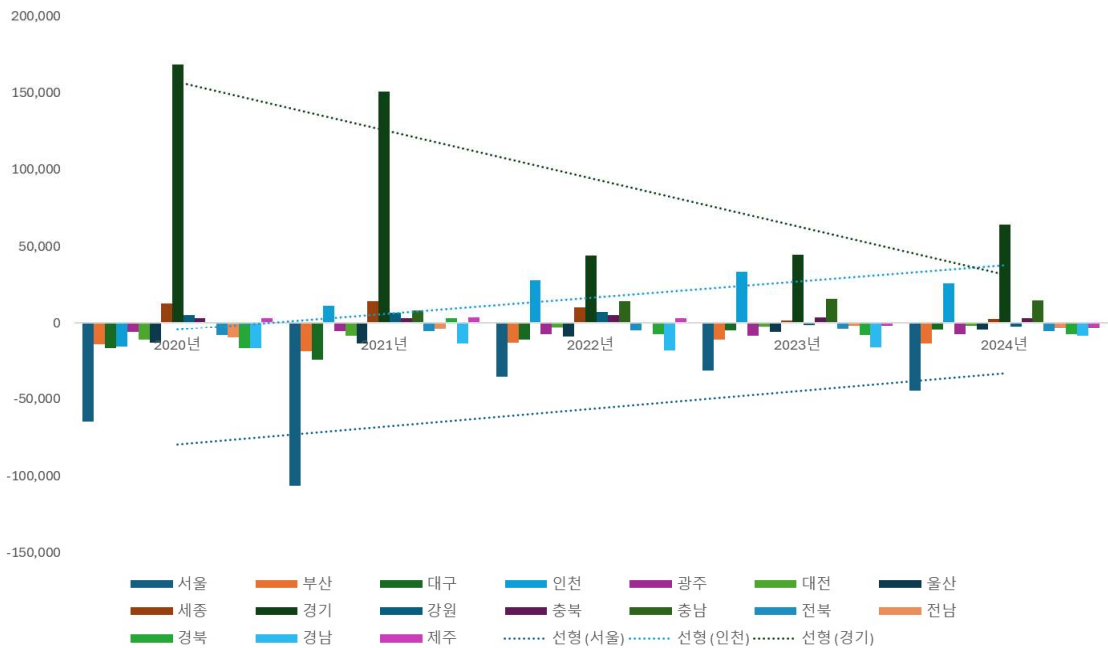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5년간('20~'24) 순이동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17개 시·도 중 서울, 부산, 대구 등 10곳인 것으로 조사

○ 최근 5년간 기존 지역에서 순유출된 평균 인구수는 138,137명이며, 주로 유입되는 지역은 경기도였으며, 타지역에서 감소한 이동수의 94,320명(68.3%)가 경기도로 유입

〈표〉 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순이동 통계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평균
서울	-64,850	-106,243	-35,340	-31,250	-44,692	-56,475
부산	-14,347	-18,903	-13,562	-11,432	-13,657	-14,380
대구	-16,835	-24,319	-11,519	-5,330	-4,712	-12,543
인천	-15,748	11,423	28,101	33,507	25,643	16,585
광주	-6,083	-5,883	-7,642	-9,017	-7,962	-7,317
대전	-11,097	-8,931	-2,996	-2,474	-1,693	-5,438
울산	-13,584	-13,674	-9,536	-6,215	-4,854	-9,573
세종	13,025	14,085	10,128	1,690	2,808	8,347
경기	168,373	150,517	43,882	44,612	64,218	94,320
강원	5,457	6,681	7,494	-1,397	-2,527	3,142
충북	3,454	3,462	5,201	3,873	3,245	3,847
충남	741	8,522	14,314	15,840	14,664	10,816
전북	-8,494	-5,801	-5,115	-4,457	-6,060	-5,985
전남	-9,754	-4,487	-345	-1,800	-3,988	-4,075
경북	-16,978	3,337	-7,666	-8,163	-8,003	-7,495
경남	-16,658	-13,703	-18,547	-16,300	-9,069	-14,855
제주	3,378	3,917	3,148	-1,687	-3,361	1,079



[그림] 최근 5년간 17개 시·도 순이동 현황

※ 출처 : KOSIS 국가통계포털(kosis.kr)

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서 산출된 빈집비율, 순이동 통계를 바탕으로
빈집비율·순이동 분산형 그래프 제시함으로써 동일 기준선·축 범위로 비교 가능

- 최근 5년간('20~'24) 서울 인구의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, 전라남도의 빈집비율이 가장 상위
-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은 서울(56,475명), 경남(14,855), 부산(14,380명) 순으로 나타났으며, 빈집비율은 전남, 제주, 강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

〈표〉 최근 5년간(2020년~2024년) 평균 빈집비율 및 순이동수 통계 현황

(단위 : 1,000명, %)

시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도
순이동	-56.5	-14.4	-12.5	16.6	-7.3	-5.4	-9.6	8.4	94.3
빈집비율	3.2	8.6	5.6	6.8	7.2	5.2	7.5	9.1	5.7
시도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전국
순이동	3.1	3.8	10.8	-5.9	-4.1	-7.5	-14.8	1.1	0.0
빈집비율	12.4	10.9	11.8	12.2	14.7	12.0	10.6	13.5	7.8

※ 출처 : KOSIS 국가통계포털(kosis.kr)

- (빈집비율 ↓·순유입형) 주택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주 선택이 유지되어 주거구조가 안정적인 상태로 경기, 인천, 세종이 해당
- (빈집비율 ↑·순유입형)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이 거주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태로 세종, 충북, 충남, 강원, 제주가 해당
- (빈집비율 ↓·순유출형) 주거 공간은 유지되고 있으나 정주 선택이 약화되고 있으며, 인구 이동 요인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로 서울, 대전, 대구, 광주, 울산, 부산이 해당
- (빈집비율 ↑·순유출형) 주택 활용 저하와 정주 기능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 구조적 주거 취약상태로 해석되며, 경남, 경북, 전북, 전남에 해당



[그림] 최근 5년간 순이동과 빈집비율 분산형 그래프

※ 출처 : KOSIS 국가통계포털(kosis.kr)